

트리즈(TRIZ)이론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적용

- 레이 가와쿠보의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

김 승 현 · 김 민 자⁺

삼성디자인학교 조교수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생활과학연구소⁺

Applying TRIZ Theory to Fashion Design

- Focused on Rei Kawakubo's Fashion Design -

Sung Hyon Kim · Min-Ja Kim⁺

Assistant Professor, Fashion Design Dept. Samsung Art & Design Institu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2. 4. 6, 심사(수정)일: 2012. 7. 17, 게재확정일: 2012. 8. 20)

ABSTRACT

Creativity is a rising topic in the current society. The emphasis on creativity is valued as a key factor for success in all area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olitics, economy, culture, arts and design. The field of Fashion design is probably one of the few areas that talk about creativity as a necessary quality to surv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RIZ* (*Teoriya Reshniya Izobretatel'sskikh Sadatch*) as a theoretical tool to generate creativity in fashion design. *TRIZ* is a creative method of problem solving based on data analysis of outcomes invented by engineering. The fundamental concept of *TRIZ* has been researched through documentary studies, and practical case studies of product designs are used. Fashion design cases from *Comme des Garçons* by *Rei Kawakubo* are used to apply *TRIZ* in fashion design. *Rei Kawakubo's* design philosophy has been studied through fashion writings and visual sources in books, exhibition catalog, www.styl-e.com and online shopping mall sites. This study has selected four principles among forty inventive theories of *TRIZ*: segmentation; asymmetry; consolidation; and preliminary action to apply to *Rei Kawakubo's* fashion design. As a result, *TRIZ* can be applicable to fashion design as a creative thinking methodology. By using the four principles of *TRIZ*, this study shows how *Rei Kawakubo's* design enhanced its efficiency and aesthetics of the products and was distinguished from existing items. It is meaningful to demonstrate a possibility of adopting engineering based creative methodology in fashion design to widen the perspective and to raise a question for the need of interdisciplinary creative methodology with traditional aesthetic approach in fashion design.

Key words: asymmetry(비대칭), consolidation(통합), preliminary action(사전조치), segmentation(분할), TRIZ(트리즈)

I. 서론

창의성은 사회전반의 화두이다. 정치, 경영, 경제, 문화, 예술, 디자인 어느 분야에든 창의성이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매 시즌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대중의 평가받아야 하는 디자인분야에서 창의성은 핵심 가치이며 경쟁력이다.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성'과 달리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는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다.¹⁾ 작년에 타계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21세기형 창의성구현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그는 전화, 컴퓨터, 카메라의 기본적 기능을 결합하여 스마트폰을 출시하여 무선전자산업의 지형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가 보여준 것은 21기형 창의성이다. 이와 같이 누구나 알고 있으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실현하는 것이 이시대의 창의성이다.

패션디자인에서 창의성은 디자인초기단계인 발상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휘된다. 따라서 창의적 디자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디자인발상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패션디자인의 창의적발상법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고찰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개념적발상법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최윤미²⁾는 패션디자인의 창의적발상과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창조적발상의 기본구조로 기존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결합으로 구성하였다. 공미선³⁾은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의 전개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발상법의 원리로 형태변형법과 유추법을 제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디자인발상법은 개념적발상법 위주로 고찰되었으며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현실 적용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것은 패션디자인이 디자인분야 중에서도 감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므로 시스템으로 체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렇다면 좀 더 이성에 기반하고 시스템중심의 디자인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계 문제해결방식인 트리즈 [TRIZ(Teoriya Reshniya Izobretatelskikh Sadatch)]를 패션디자인발상법의 하나로 소개하고자 한다. 트

리즈는 최근 산업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기술적 문제해결원리로 1960년대 러시아 엔지니어 겐리흐 알츠슐러에 의해 20만건의 특허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기술적 문제해결방식에는 예측 가능한 공통된 법칙과 패턴이 것이 트리즈이론의 개념이며 누구나 쉽게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트리즈이론의 특징이다. 이와 같이 트리즈는 21세기형 창의성 발휘에 적합한 방법론이다. 최근 트리즈원리는 기술 분야의 문제해결원리라는 인식을 넘어 정치, 경영, 서비스, 교육, 전략, 디자인분야 등에서 활용성이 적극 검토되고 연구 적용 되고 있다. 국내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백창수⁴⁾의 산업디자인 교육의 창의적 사고기법으로서 트리즈 이론 적용에 대한 연구, 남현정⁵⁾의 트리즈를 적용한 창의적 디자인발상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김희필⁶⁾ 외의 초등학생의 창의성 교육을 위한 TRIZ 발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시대인 지금 패션디자인의 창의성 문제를 기존의 개념적 시각이 아닌 기술적 이론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트리즈가 패션디자인발상법으로 검토된다면 기존 개념위주의 발상법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관점의 발상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최근 들어 분야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융합과 통섭의 미덕이 강조되고 있다. 루트벤스타인⁷⁾은 혁신의 기법이란 항상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방법론을 가진다. 따라서 미래는 우리가 앞의 방법 모두를 통합해서 통합적 이해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미 제품디자인, 창의적 디자인교육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비 기술 분야에서 트리즈이론이 활발히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다. 트리즈 이론의 장점은 문제의 본질에 공통적인 법칙과 패턴이 있음을 근거해서 해결책을 찾아간다. 즉 알고 보면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문제를해결하는 원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트리즈 이론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패션디자인의 창의성 문제를 기술적 이론의 관점으

로 분석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트리즈이론의 개념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제품 디자인에서 트리즈를 바탕으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문헌자료 및 기업실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트리즈이론은 총 40가지 발명원리(40 inventive principles)를 문제해결방법의 도구로써 제시하고 있다. 이 40가지 원리는 대상 분야의 특성과 문제해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발명원리들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0가지 발명원리⁸⁾ 중 분할(01번), 비대칭(04번), 통합(05번), 사전조사(10번) 등 4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창의성 분석을 시도 하였고 각 원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른 디자인분야에서의 적용사례를 고찰하였다. 이 4가지 원리는 종합일간지의 트리즈의 우수성에 관한 기사에서 현재 기업제품 개발과 혁신에 기여하며 가장 활용도가 높은 주요 트리즈원리로 분석되었다. 제품디자인의 기술적 문제해결방법으로 가장 주요하게 활용되는 원리로 검증된 4가지 핵심원리를 패션디자인의 문제해결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사료되므로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트리즈이론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적용을 분석하기위한 디자인사례로는 레이 가와쿠보의 *폼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디자인을 사용하였다. 그가 이 시대 가장 창의적인 패션디자이너 중 하나로 디자이너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에 트리즈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패션디자인 적용의 범용성 여부에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패션디자인 창의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철학과 미의식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패션디자인사례의 범위는 21세기 창의성을 논하는 만큼 21세기 이후 발표된 작품으로 하였으며 전시회 도록, 단행본과 패션 전문 사이트 www.style.com, 온라인 쇼핑몰사이트의 시각자료와 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II. 트리즈 이론에 대한 고찰

트리즈(TRIZ)는 'Teoriya Reshniya Izobretatelskikh Zadatch'라는 러시아어의 약자로 1960년대 알츠슐러

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창의적 기술 문제 해결방법이다. 이 이론의 창시자인 겐리히 알츠슐러는 이미 13세의 어린나이에 특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천재적과학자다. 알츠슐러는 1946년 해군의 특허부서에서 특허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부서의 기술적 문제해결에 참여하게 되는데 동일한 원리로 표면적으로 매우 다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알츠슐러로 하여금 기술적 문제해결에 예측 가능한 공통된 원리와 패턴이 있을 것이라 확신을 주게 되며 이것이 트리즈(TRIZ)원리 시작점이 된다. 알츠슐러는 1946년부터 1963년까지 20만 건의 러시아특허를 분석하여 창조성의 수준을 5단계로 분류하고 누구나 객관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수준의 3단계와 4단계의 특허 4 만 건을 추출하여 집중 분석하여 해결책의 공통점으로 뽑아낸 것이 '40가지 발명원리'이다.⁹⁾ 40가지 발명원리는 가장 널리 알려진 트리즈 원리는 국내의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에서 활발히 연구되며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5백대 기업 중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트리즈를 활용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유럽각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대만, 등에서는 학교에서 트리즈를 가르치고 있다.¹⁰⁾

1. 트리즈 이론의 '40가지 발명원리' 중 4개 핵심 원리와 적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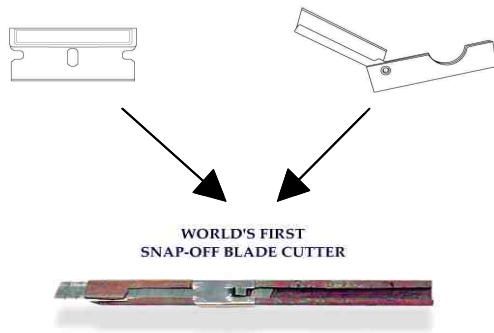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트리즈의 대표적 문제해결원리인 '40가지 발명원리' 중 4개의 핵심원리¹¹⁾, 01. 분할(Segmentation), 04. 비대칭(Asymmetry), 05. 통합(Consolidation), 10. 사전조치(Preliminary Action),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꺼번에 해결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나누어서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분할의 원리', 익숙한 대칭구조에서 탈피해 비대칭구조로 만들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비대칭성',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을 통합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통합의 원리' 등 발상의 전환을 도와주는 내용들을 체계화한 원리이다.¹²⁾

1) 분할(Segmentation)

분할의 원리는 '40가지 발명원리' 중 첫 번째 원리로 하나의 물체를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세부조직으로 나누어 효율성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1) 동일한 기능의 독립적인 세부 조직으로 분할

분할원리가 적용된 성공적인 제품디자인사례로 커터(utility knife, snap-off blade cutter, boxcutter, stanley knife)칼¹³⁾이 있다. 커터칼<그림 1>¹⁴⁾은 1956년 일본의 오카다 요시오(岡田良男)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이를 자르는 일을 하던 중 판 모양의 초콜릿의 칸 구분과 유리의 잘라진 면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커터칼 이전에는 칼이 무너지면 칼 전체를 버려야 하므로 불편함이 있었으나, 커터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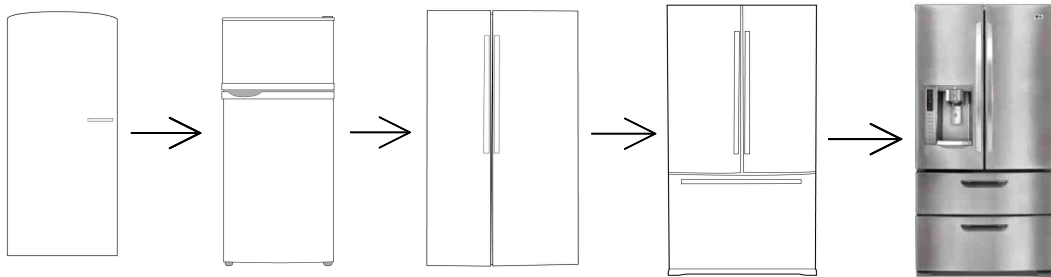


<그림 1> OLFA SNAP-OFF BLADE CUTTER
1956, 오카다 요시오
- <http://www.olfa.co.jp>

의 사용으로 칼끝만 부러뜨려 잘라내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¹⁵⁾ 하나의 긴 칼날을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세부단위로 나누어 활용성을 높이는 트리즈 분할원리는 커터칼을 혁신적인제품으로 탄생시켰다. 칼의 기능이 날카로운 칼날 끝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칼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낭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커터칼은 독립적으로 분할된 개체를 절단할 때마다 동일한 기능의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제품과 차별화되었다.

(2) 복합 기능의 독립된 세부 조직으로 분할

<그림 2>¹⁶⁾는 냉장고 형태의 진화과정이다. 초기 1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1도어 형태에서, 2개의 독립적 공간으로 분할된 2도어의 형태로 진화하였으며, 2도어 형태에서 3도어 형태로 그리고 최근에는 4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추가 분할된 4도어 냉장고가 국내의 삼성, LG를 비롯하여 세계적 기업에서 출시되고 있다. 독립적으로 분할된 공간은 개별적 온도조절이 가능하여 음식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온도로 저장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세부적으로 분할된 공간에서 적절한 온도로 음식을 보관할 수 있어 냉장고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세부공간으로 분할되어 수납의 편리함이 확대되었다. 또한, 필요한 공간의 문만 열고 닫을 수 있으므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전력소비량을 줄일 수도 있다.



<그림 2> 냉장고 형태의 진화과정
Ultra Capacity French 4-Door Refrigerator
- <http://www.lg.com>

2) 비대칭(Asymmetry)

비대칭원리는 '40가지 발명원리' 중 04번째 원리로 대칭형이면 비대칭형으로 전환시키거나, 비대칭형이면 비대칭의 정도를 높여 기존의 것과 다른 차별화를 만드는 문제해결원리이다. 비대칭의 원리는 대칭형에 익숙해진 인간의 감각과 대칭형을 만들고자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탈피해 사고의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1) 고정된 형태의 비대칭

“인 아테사” 쓰레기통<그림 3>¹⁷⁾의 형태는 한 쪽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진 비대칭형으로 트리즈 비대칭 원리가 적용된 제품디자인사례이다. 쓰레기통의 가장 평범한 형태는 원통이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던지는 방향으로 살짝 기울임으로써 이 쓰레기통은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¹⁸⁾ 일반적인 쓰레기통의 개념은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릴 물건이나 이미 내다 버린 물건¹⁹⁾을 담은 통이다. 따라서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보다는 순수한 기능에 맞춘 대칭 원통형이나 직사면체형의 디자인이 일반적이었다. “인 아테사”쓰레기통은 작은 형태의 변화로 혁신을 가져온 사례이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행동에 주목하여 기능의 추가는 물론 디자인의 혁신을 성취하였다. 관습이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발상의 전환으로 제품의 기능향상은 물론 시각적 즐거움까지 주는 감성적 디자인을 만들어 낸 사례이다.

(2) 상황에 따라 변하는 비대칭

트리즈 비대칭원리의 적용 사례 중 러시아 특허

456403번을 획득한 ‘말하는 가스통’<그림4>²⁰⁾은 내용물의 상황에 따라 비대칭의 정도가 변하는 원리가 적용되었다. 알츠슬러 책에서 인용한 “말하는 가스통”이란 부제가 붙은 사례이다. 자원의 추가 없이 가스가 남은 양을 알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인데 가스가 떨어졌을 때 통이 알아서 스스로 신호를 보내 준다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닥을 비스듬히 짚고 그쪽에 추를 달아 가스가 일정량이 하가 되면 기우는 원리이다.²¹⁾ “말하는 가스통”은 제품 디자인의 좌우가 대칭이어야 한다는 무의식적 습관의 탈피로 기술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3) 통합(Consolidation, Mer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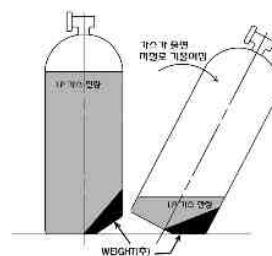
통합의 원리는 '40가지 발명원리' 중 05번째 원리로 동일하거나 유사한기능을 수행하는 물체를 결합하거나 통합하여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하는 원리이다.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통합하여 동시에 진행하게 함으로서 작업 시간과 작업효율성을 증진시킨다.

(1) 도구와 사용자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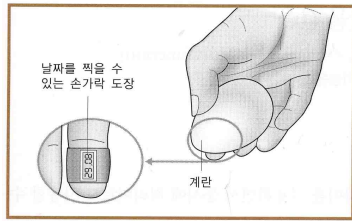
통합원리의 사례로 특허 SU A.c.N163,473을 획득한 달걀 유통기한표시 도장<그림 5>²²⁾이 있다.²³⁾ 유통기한표시 도장을 반지 형태로 설계하여 사용자의 손가락에 끼우고 달걀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이다. 달걀 수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통합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작업 효율성을 증대하고 작업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그림 3> “인 아테사” 쓰레기통
1971, Enzo Mari, Danese, Italy
- <http://www.switchmodern.com/>



<그림 4> 트리즈 가스통과 투명 가스통
특허 456403, 러시아
- 한국디자인포럼, 19, p. 394.



〈그림 5〉 달걀에 날짜를 찍을 수 있는 손가락 도장
특허 SU A.c.N163,473
- 창의성의 또다른 이름 트리즈, p. 163.



〈그림 6〉 언 땅을 녹이는 굴착기
발명가 인증서 #235, 547
- 새로운 방식의 트리즈, p. 165.



〈그림 7〉 설탕용기 1961,
Carlo Mazzeri, Alessi, Italy
- Super Normal, p. 86.



〈그림 8〉 쇼핑바구니
Cyunichi Jyuki, Japan
- Super Normal, p. 36.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2) 도구와 도구의 통합

도구 와 도구의 통합원리로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는 발명가 인증서 #235,547을 획득한 굴착기가 있다. 로터(Rotor) 굴착기(그림 6)²⁴⁾의 작동 요소는 로터와 크레인 팔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굴착기에는 언 땅을 녹이는 가열장치(예를 들어, 로터 모서리의 양 끝에 붙어있는 노즐)가 있어서 독특하다. 이것이 굴착에 드는 힘을 줄여준다.²⁵⁾ 동절기 작업 시, 땅이 얼어 작업이 지체되는 것을 감안하여 굴착기에 언 땅을 녹이는 가열장치를 통합한 사례이다.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통합하여 동시에 진행하게 함으로서 작업시간을 절감하고 작업효율성을 증진시킨다.

4) 사전조치(Preliminary Compensation)

사전조치는 '40가지 발명원리' 중 11번째 원리로 예측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원리를 말한다.

(1) 외곽선의 변화 조치

〈그림 7〉²⁶⁾은 이탈리아 술집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설탕용기이다. 뚜껑의 외곽선에 사전에 뚫어 놓은 구멍에 스푼을 꽂아둘 수 있으며, 뚜껑가장자리는 앞쪽이 바깥으로 접혀있어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다. 대개 이 모든 기능을 한데 우겨넣다 보면 흉하고 어색한 물건이 되기 쉽다 하지만 이 용기는 모든 것이 어우러지면서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한 설탕용기로 탄생했다.²⁷⁾ 이 설탕용기는 사용 시 예측되는 문제점, 즉 티스푼 꽂을 자리를 미리 예측하여 뚜껑의 일부를 잘라내었으며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잡기 쉽도록 뚜껑 앞쪽의 가장자리 앞쪽으로 접어 돌출시켜 디자인 효율성을 높인 사례이다.

(2) 표면의 변화 조치

〈그림 8〉²⁸⁾은 슈퍼마켓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쇼핑바구니이다. 쇼핑바구니는 내용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와 두께를 가진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나 쇼핑하는 동안 줄곧 들고 있어야 하는 물체이므로 바구니 자체의 무게가 무거워

서는 안 된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트리즈 사전조치원리가 적용되었다. 적절한 강도의 소재를 사용하나 바구니표면에 구멍을 뚫어 무게를 절감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과 뚫린 구멍사이로 쇼핑한 물건을 확인할 수 기능까지 추가되어 창의적인 디자인이 되었다.

Ⅲ. 트리즈 이론으로 레이 가와쿠보 패션디자인의 적용

레이 가와쿠보는 콤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디자이너이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창의적 디자이너이다. 80년대 이후에 독자적인 세계를 가진 신인 디자이너가 많이 배출되지 못한 것이 바로 레이 가와쿠보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현재 유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유행을 한 많은 디자인 요소들이 이미 그녀에 의해서 먼저 선보여진 것이라는 지적은 그녀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아티스트인가를 웅변하는 것이다.²⁹⁾ 가와쿠보는 고정관념을 파괴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세계 패션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인 그녀의 차별화되는 디자인 접근방식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스케치와 드레이프로 디자인을 전개하며 전통적인 드레스메이킹과 테일러링 기법으로 복식의 구조를 형상화하는 일반적인 디자이너와 다르게 레이 가와쿠보는 패션의 테크닉과 관련된 고정관념에서 자유롭다. 그녀는 고정된 구조의 틀에서 자유로운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데 때로는 그로 인해 복식의 기초가 파괴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³⁰⁾ 가와쿠보의 디자인과 같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디자인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발상과 더불어 기술적 문제해결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와쿠보의 디자인은 예술과 기술이 잘 융합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트리즈 이론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적용에 앞서 패션디자인의 발상과정에 있어 문제의 시작인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 철학

레이 가와쿠보는 1980년대 초반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 등의 일본 디자이너들과 함께 국제무대에 데뷔하여 전통적인 서구의 미의식과 거리를 둔 새로운 미학인 ‘빈곤한 패션(poor look)’과 ‘빅룩(big look)’을 발표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본태생의 일본 출신인 가와쿠보는 국제 진출에 앞서 “우리는 전통복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나는 0에서 시작한다.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강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한다”³¹⁾라고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에 있어 관습이나 규칙 그리고 고정관념을 멀리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이는 관습이나 고정관념을 발명원리의 방해요소로 규정하는 트리즈의 문제해결원리와 일치한다. 패션디자인의 문제해결에 있어 발상의 시작점이 되는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선미학에 영향을 받은 가와쿠보는 복식에서 빈곤미를 추구한다. 전통적인 일본미인 간소한 멋을 표현하기 위해 천연소재의 무지(無地)를 사용하거나, 유현(幽玄)의 색채인 무채색, 비대칭의 실루엣(silhouette), 봉계의 미완성, 또는 일부러 천을 구기거나 찢는 등 의식적으로 계산된 파형(波形)의 아름다움을 창조했다. 좌우대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깨뜨림으로써 형태에 새로운 생동감과 변화를 주었다.³²⁾ 여성복식의 전통적 미적가치와 거리를 둔 폐허의 미, 미완성의 미로 디자인의 참신성을 추구한다.

둘째, 선미학의 불이미(不二美) 정신에 근거하여 전형적인 이분법적 해체를 부정하고 대립적요소의 공존을 추구한다. 가와쿠보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부와 빈곤의 이분법적 해체를 거부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기를 거부하고 성역할을 넘어 하나의 인간이라는 개념아래 디자인을 전개한다. 가와쿠보는 여성의 가냘픈 부분과 남성의 거친 부분을 잘라내고 남녀를 같은 위치에 세워 인간성=휴머니티 자체라고 주장하고 국경, 종교의 경계의 파괴에 이어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와 같은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남자도 여자도 인간답게”라는 더 큰 명제

를 제시한다.³³⁾ 이 또한 인체의 비례와 비율의 재현에 집중하는 전통적 서구복식을 관습을 버리고 인체를 강조하기 보다는 은폐하는 형태를 파괴한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가와쿠보는 전통적인 서구 복식의 미적 개념을 파괴하고 여성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또는 관능미를 복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한다.

가와쿠보의 디자인철학은 선미학의 빈곤미와 불미미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전통적 미적 범주와 가치의 기준을 넘어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는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기위해 전통적인 관습이나 규칙, 고정관념과 거리를 두는 문제해결방식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다.

2. 트리즈 이론의 적용

1) 분할(Segmentation)

전통적인 서구복식의 형태는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학파의 비례(proportion)에 근거하여 인체의 이상적인 비례와 비율에 따라 인체의 형태를 재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을 이루며 허리선을 중심으로 상·하로 분할된다. 상의는 두 팔을 넣을 수 있는 두 개의 소매와 몸통으로 구성되며 앞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완벽한 대칭형을 이룬다. 하의 역시 앞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을 이루며 몸의 외곽선을 따르는 스커트 또는 두 다리의 형태를 재현하는 바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할에 있어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인 비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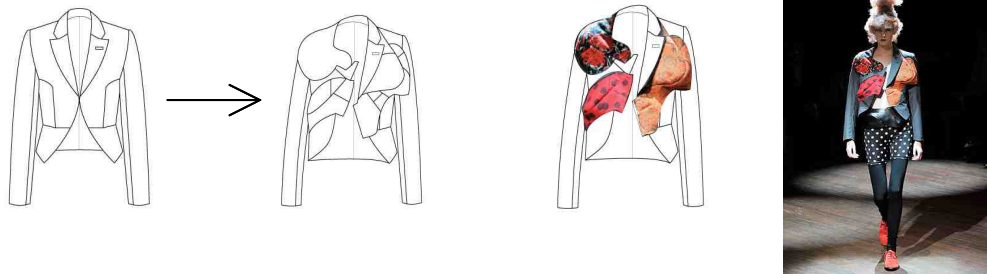
비율의 기준이 적용되며 성역할에 따라 인체의 강조할 부분이 결정된다. 이상적인 인체미의 표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심지, 패딩 또는 착시 등을 통해 보완되기도 한다.

(1)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한 독립적인 세부 조직으로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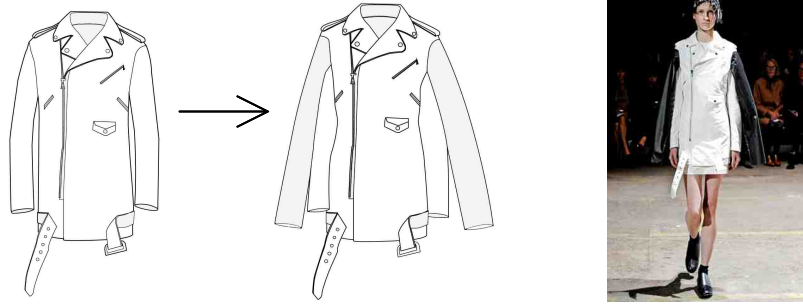
<그림 10>³⁴⁾은 2010년 봄 데 가르송 컬렉션에서 발표된 재킷디자인으로 복식의 일부를 독립된 개체로 분할하여 디자인목표를 성취한 사례이다. 분할원리 적용 전 도식화를 살펴보면 재킷의 좌우로 각 3 조각씩, 모두 6개의 작은 조각이 모여 앞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분할원리 적용 후 13개의 조각이 추가로 분할되어 앞면이 총 19개의 세부조각으로 나누어진다. 추가분할이 이루어지며 인체의 외곽선에서 들출된 3개 덩어리가 구성되었는데 이는 인체의 윤곽을 재현하는 서구전통적인재킷의 구성방식을 파괴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트리즈분할원리인 '하나의 물체를 여러 개의 독립된 세부조직으로 분할하는 원리'가 적용된 사례로 하나의 재킷 안에서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세부분할이 이루어져 전통적 구성방식과 인체미의 표현을 거부하는 디자이너의 철학이 반영되었다.

(2) 복합기능의 독립된 세부조직으로 분할

인체의 형태를 바탕으로 하나의 몸통과 두 개의 소매가 좌우 대칭형으로 분할되는 것이 일반적인 서



<그림 9> 분할원리 적용 전 재킷 도식화->분할 후 재킷 도식화
Comme des Garcons, 2010 S/S
- <http://www.style.com>







〈그림 10〉 분할원리 적용 전 재킷 도식화 -> 분할원리 적용 후 재킷 도식화
 Comme des Garcons, 2011 S/S
 - <http://www.style.com>

구복식의 형태이다. 〈그림 10〉³⁵⁾는 2011SS 컬렉션에서 발표된 재킷으로 전통적인 서구복식의 분할방식을 탈피한 디자인이다. 이 재킷은 소매에 분할원리가 적용되어 하나의 몸통에 2개의 소매에서 4개의 소매로 2개의 소매가 추가되었다. 기능에 있어 착용방식에 따라 4가지 다른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다. 이는 관습적인 복식분할의 기준을 파괴하고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지가 반영된 작품으로 착용자의 착용방식에 따라 복식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복합기능의 재킷이다.

2) 비대칭 (Asymmetry)

비대칭원리는 대칭형에 익숙해진 인간의 감각과 대칭형을 만들고자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탈피해 사고의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칭(symmetria)', 즉 균제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미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표현들로 어원적으로 부분들의 배열이나 비례를 뜻하는 것이다.³⁶⁾ 대칭형은 고전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시각적 안정감을 주기위한 요소로 사용된다. 인체는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을 이루고 있으며 인체의 형태를 바탕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서구복식의 형태 역시 앞 중심선을 중심으로 좌우

〈표 1〉 트리즈 분할원리 적용사례

TRIZ 이론	분할(Segmentation)		
분할원리	하나의 물체를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세부 조직으로 나누어 효율성 확대.		
동일기능의 독립적인 제품디자인	세부조직으로 분할 패션디자인	복합기능의 독립적인 제품디자인	세부조직으로 분할 패션디자인
-동일한 기능의 독립적인 세부조직으로 분할	-동일한 디자인목표 달성을 위해 독립적인 세부조직으로 분할	-복합기능의 독립적인 세부조직으로 분할	-복합기능의 독립적인 세부조직으로 분할 -착용방식에 따라 다양한 복식의 형태 연출
			

대칭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목판, 소매, 주머니, 칼라, 라펠을 비롯하여 다트와 절개선까지 구성이나 비율에 있어 완벽한 대칭형을 이룬다. 가와쿠보는 비대칭형을 복식디자인의 창의적 문제해결방식으로 적용하여 전통적인 관습과 규칙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디자인목표를 성취하였는데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고정된 비대칭형태 유지

고정된 비대칭형태가 유지되는 사례는 외곽선의 비대칭, 내부선의 비대칭, 재질감의 비대칭, 색채와 문양의 비대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헤럴드 코다가 규정하고 있는 일본 미학의 본질인 '불규칙(irregularity), 불완전(imperfection), 비대칭(asymmetry)'³⁷⁾ 중의 하나이기도 한 비대칭은 가와쿠보의 초기 디자인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과 강도로 주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디자인요소이다. 가와쿠보의 작품에서 다양한 비대칭원리의 적용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디자인에 하나 이상의 비대칭원리가 동시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1>³⁸⁾은 2012SS에 발표된 가디건디자인으로 복식의 내부선에 비대칭원리가 적용되었다. <그림 12>³⁹⁾재킷은 좌우로 이질적인 소재가 사용되어 재질감의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그림 13>⁴⁰⁾재킷디자인은 재질감의 비대칭과 외곽선의 비대칭원리가 동시에 적용된 사례이다. 재킷 앞 중심의 좌우로 이질적인 재질감의 소재가 비대칭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좌우 밑단의 길이가 다른 외곽선의 비대칭을 이룬다. <그림 14>⁴¹⁾는 2011FW

컬렉션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재킷의 앞 중심선의 좌우로 외곽선의 비대칭, 색채, 문양의 비대칭, 재질감의 비대칭이 동시에 적용되었다. 우선, 재킷의 형태가 좌우로 강도 높은 비대칭형을 이루고 있다. 좌측은 남성적인 테일러드 재킷의 형태를, 우측은 여성적인 블라우스 소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재질감 역시 하나의 재킷이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이질적인 소재가 좌우로 사용되었다. 좌측은 전형적인 무지의 양복지가 사용되었으며, 우측은 여성성이 부각되는 하늘거리는 블라우스감에 화려한문양이 프린트되어 사용되었다. 이 재킷은 디자인의 참신성을 넘어서 옷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인습적 관념마저 파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트리즈비대칭원리는 비대칭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원리이며, 비대칭이면 비대칭의 정도를 높여 기존의 것과 다른 차별화를 추구한다. <그림 11>에서 <그림 14>방향으로 비대칭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비대칭의 정도가 높을수록 디자인 혁신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비대칭

트리즈의 비대칭원리를 적용한 사례로 살펴본 '말하는 가스통'의 경우는 담고 있는 물체의 양의 변화에 따라 비대칭의 정도가 변하게 되는 디자인사례이다. <그림 15>⁴²⁾은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재킷 또는 드레스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착용법에 따라 비대칭의 정도와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이다. 대칭형이며 확정된 형태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서구복식의



<그림 11> Comme des Garçons 2012 S/S
- <http://www.farfetch.com>



<그림 12> Comme des Garçons 2011 S/S
- <http://www.style.com>



<그림 13> Comme des Garçons 2011 S/S
- <http://www.style.com>



<그림 14> Comme des Garçons 2011 F/W
- <http://www.style.com>



〈그림 15〉 Comme des Garçons(비대칭 재킷, 비대칭 드레스 앞면, 뒷면), 2002 F/W
- <http://www.ebay.com>

관습과 규율을 파괴한 디자인으로 담고 있는 물체, 즉 착용자의 참여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미완성의 미학을 실현하였다. 앞모습, 좌우 옆모습, 뒷모습 등 모든 각도에서 비대칭형을 이루는 디자인으로 비대칭의 정도가 매우 높다.

3) 통합(Consolidation, merging)

통합원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체를 통합하여 여러 작업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다. 개별성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기존의 구분 또는 문제의식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즉,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표 2〉 트리즈 비대칭원리 적용사례

TRIZ 이론		비대칭(Asymmetry)	
분할원리		물체의 형태 또는 부품을 비대칭 형태로 전환시켜 차별화 추구.	
고정된 형태의 비대칭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비대칭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고정된 형태의 비대칭	-내부선의 비대칭 -외곽선의 비대칭 -재질감의 비대칭 -색채, 문양의 비대칭	-내용물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비대칭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변하는 비대칭
			



<그림 16> Comme des Garçons,
2011 F/W
- <http://www.farfetch.com>



<그림 17> Comme des Garçons,
2011 F/W
- <http://www.style.com>



<그림 18> Comme des Garçons,
2011 F/W
- <http://www.style.com>

가와쿠보는 전통적관습과 규율에서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통합원리를 디자인에 적용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복식의 관습을 거부하며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분리가 아닌 인간이라는 통합적인개념으로 해석하여 디자인에 적용하며, 시·공간을 통합한 디자인, 복식과 예술을 통합한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한다.

(1) 복식과 착용자의 통합

<그림 16>⁴³⁾은 2012 S/S 썸 데 가르송 컬렉션에 발표된 여성복디자인이다. 여성 인체의 특징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즉 보디 컨셔스(body conscious) 디자인을 거부하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남성과

여성을 인간이라는 휴머니티적 아이디어로 통합하여 표현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여성복식 또는 남성복식이라는 이분법적 해석이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를 통합한 인간을 위한 복식이라는 점에서 디자이너의 철학을 관철하였다. <그림 17>⁴⁴⁾은 썸 데 가르송 2012 S/S 남성복컬렉션에서 발표된 디자인이다. 테일러드재킷과 함께 대표적인 여성복식 아이템인 치마가 함께 착용되었다. 하나의 착장 속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된 디자인으로 성역할의 이분법적해석을 파괴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철학이 반영되었다.

(2) 복식과 복식의 통합

<그림 18>⁴⁵⁾은 썸 데 가르송 2011FW컬렉션에 “혼합 패션(Hybrid fash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그림 19> Comme des Garçons, 2011 F/W
- <http://www.farfetch.com>

작품이다. 복식의 좌우로 각각 사립학교 남학생 교복과 바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여성의 인체를 드러내는 얇은 소재의 실크 블라우스를 배치하여 성의 모호성을 디자인에 표현하였다.⁴⁶⁾ 가와쿠보는 재킷의 좌우로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복식의 일부를 배치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의 복식으로 통합하고자하는 디자인목표를 실현하였다.

〈그림 19〉⁴⁷⁾는 코트의 앞과 뒤로 테일러드 코트와 케이프가 통합된 디자인이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두 개의 복식을 하나의 복식으로 통합하여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용한 사례이다. 〈그림 20〉⁴⁸⁾은 2011FW 컬렉션에 출시된 가디건디자인이다. 흰색의 긴소매 가디건과 도트무늬 조끼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통합하여 가디건과 조끼를 동시에 착용한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준다.



〈그림 20〉 Comme des Garçons, 2011F/W
- <http://www.farfetech.com>

〈그림 21〉⁴⁹⁾은 2012SS 컬렉션에서 발표된 크리놀린 프론트 스커트(Crinoline Front Panel Skirt)이다. 스커트옆선을 중심으로 19세기 유행패션이었던



〈그림 21〉 Crinoline Front Panel Skirt, 2012 S/S
- <http://www.ivomilan.com>

크리놀린을 스커트를 앞면에, 현대패션인 일자형스커트(Pencil Skirt)를 뒷면에 배치하여 시·공간을 통합한 디자인이다. 고정된 규칙과 규율은 트리즈발명원리에 있어 창의적 문제해결의 방해요소로 분석된다.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시·공간을 통합한 가와쿠보의 디자인문제해결방식은 트리즈정신과 일치한다. 〈그림 22〉⁵⁰⁾는 2011SS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으로 복식의 한계를 넘어 예술의 경지에서 통합원리가 적용된 사례이다. 형태는 동일하나 이질적인 재질감의 두 복식과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두 인간이 하나의 작품으로 통합된 사례이다.

4) 사전조치(Preliminary action)

사전조치원리는 제품 완성이후의 문제를 예상하고 예방하는 원리이다. 복식디자인에서 사전조치는 디자인목표달성을 위해 소재의 표면 또는 외곽선에 적용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가와쿠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디자인의 독창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디자이너이다. 그녀는 “나는 0에서 시작 한다”라고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서 언급하기도 하였듯이 디자인에 앞서 소재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관습을 탈피한 차별화를 추구한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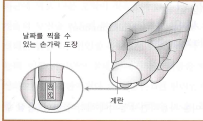



(1) 외곽선의 변화

〈그림 23〉⁵²⁾은 썸 데 가르송 2008SS 컬렉션에서 발표된 코트디자인으로 사전조치원리가 적용된 사례이다. 전통적인 서구복식의 분할, 비율과 비례의 법



〈그림 22〉 Comme des Garçons, 2011S/S
-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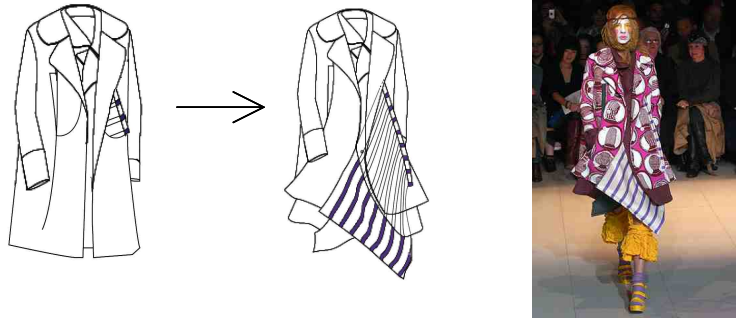
〈표 3〉 트리즈 통합원리 적용사례

TRIZ 이론		통합(Consolidation, Merging)	
분할원리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체를 결합하거나 통합하여 효율성 증진. 하나의 물체를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세부 조직으로 나누어 효율성확대.	
도구와 사용자의 통합		도구와 도구의 통합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도구와 사용자의 통합	-복식과 착용자의 통합	-도구 와 도구의 통합	-성역할의 통합 -복식과 복식의 통합 -시·공간의 통합
			

칙을 의도적으로 파괴하여 빈곤미와 시각적 유희를 유도한 작품으로 1980년대 초반 국제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지패션(beggarmen look)'의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코트의 앞 중심에 줄무늬 천 조각이 낭마와 같이 매달려 있는데, 이는 코트 주머니의 크기가 수배수로 확장되어 코트의 외곽선 밖으로 돌출되어 나온 것이다. 일반적인 코트의 주머니 크기가 손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코트의 내부에 배치된다면 〈그림 23〉의 디자인에서는 주머니의 비율과 비례가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 또한 코트의 안쪽으로 길이가 조금 더 긴 보랏빛코트가 겹쳐져 안쪽 코트의 일부가 소매와 코트 밑단 부분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크고 작은 옷을 크기에 상관없이 마구 겹

쳐 입은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빈곤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조치 원리가 효과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그림 24〉바지의 도식화를 살펴보면 인체의 외곽선 즉, 다리의 형태를 재현하는 전통적인 바지의 형태와 차별된다. 이상적인 인체의 형태 즉,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길고 가느다란 역삼각형 모양의 다리 형태와 무관한 S자 실루엣을 하고 있어 성인 여성의 아름다운 다리 보다는 유아의 안짱다리를 연상하게 한다. 이는 혁신적인 바지의 형태로 시각적 유희를 주며, 착용한 모습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디자인이다. 바지를 착용한 사진〈그림 28〉⁵³⁾을 살펴보면 몸의 형태와 무관한 S자 실루엣이 철저한 사전계획에



<그림 23> 일반적인 비율과 비례의 주머니->확장된 비례와 비율의 주머니
Comme des Garcons, 2008 S/S
- <http://www.style.com>



<그림 24> 도식화(일반적인 바지) ->도식화(S자 실루엣 바지)
2010SS Comme des Garcons, 2010S/S
- <http://www.yoo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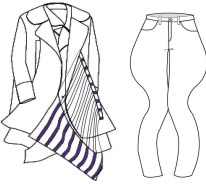




<그림 25> Comme des Garcons, 2008S/S
- <http://www.farfetch.com>

의해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S자형으로 인체의 외곽선에서 돌출된 부분은 착용 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부피감을 더해주며 들어간 부분은 주름으로

처리되어 바지의 형태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가와쿠보의 디자인철학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착

〈표 4〉 트리즈 사전조치원리 적용사례

TRIZ 이론		사전조치(Preliminary Compensation)	
분할원리		예측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 조치.	
외곽선의 변화 조치		내부의 변화 조치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외곽선의 변화 -외부 형태의 변화	-외곽선의 변화 -실루엣의 변화	-표면의 변화	-표면의 변화
			

용 전 새로운 형태의 바지모습에 호기심을 갖게 되며, 착용 후 새로운 형태의 발견으로 유희를 느끼게 하는 창의적 디자인이다.

(2) 표면의 변화

〈그림 25〉⁵⁴⁾는 2008SS 컬렉션에서 발표된 재킷 디자인으로 소매표면의 일부에 의도적인 구멍을 내어 반전의 재미를 준다. 재킷 착용 시 내부의 내용 즉, 착용자의 피부 또는 이너웨어가 절개된 부분을 통해 외부로 노출되어 재킷 디자인을 완성한다. 내부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확정된 하나의 모습을 추구하는 전통 서구복식의 관습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지가 관철되었다. 또한 절개된 부분의 가장자리는 울이 풀린 상태로 남겨져 있는데 이는 일본의 선미학에서 비롯된 가와쿠보의 디자인 철학인 빈곤미의 표출이며 미완성의 미가 봉제의 미완성을 통해 표현된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패션디자인에서 창의성에 대한 고민은 현장과 이론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본 연구는 기술공학이론으로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온 트리즈이론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시도이다. 감성이 유독 강조되는 패션디자인에서 공식과 부호로 지배되는 공학적 이론인 트

리즈는 어색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다른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트리즈이론의 도입과 적용은 패션디자인분야에서도 하나의 선택으로써 본 이론의 수용을 적극 검토하게 하고 있다. 이제 기술과 예술의 접목은 시도해 볼만한 분야가 아닌 반드시 시도해야만 하는 필수적인분야가 되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아르망 트루소 Armand Trousseau는 “모든 과학은 예술에 닿아 있다. 모든 예술에는 과학적인 측면이 있다.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⁵⁵⁾라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창의적인 디자이너인 비비안 웨스트우드씨는 “나는 비정통적인 뭔가를 만들기 위해 전통적인 것을 이용한다. 패션디자인은 거의 수학과 같아서, 시대에 적합한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 서로로부터 더하고 빼야한다는 개념을 갖게 된다.”⁵⁶⁾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 가와쿠보의 Comme des Garçons 디자인에 트리즈의 4가지 핵심원리인 분할, 비대칭, 통합, 사전조치를 적용 시켜 보았다. 연구 결과, 패션디자인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디자인철학을 성공적으로 성취시킨 다수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트리즈 분할원리가 적용되어 전통적 구성방식과 차별화되는 개성적인 구성방식이 제시되었다. 이는 인체의 형태를 재현하는 전통적 구성방식과 차별화된 구성방식으로 인체미의 표현을 거부하는 디자이너의 디자인철학을 반영한다.

둘째, 비대칭원리가 적용되어 대칭형이며 확정된 형태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서구복식의 관습과 규율을 파괴한 디자인을 성취하였다. 셋째, 통합원리가 적용되어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복식의 관습을 거부하며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 분리가 아닌 인간이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디자인 철학을 관철시켰다. 넷째, 사전조치원리가 복식의 표면과 외곽선에 적용되어 일본의 선미학에서 비롯된 가와쿠보의 디자인 철학인 빈곤미와 미완성의 미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를 지금까지 패션디자인발상법으로 당연시 되어온 개념적발상법에서 기술적발상법으로 분석틀의 폭을 확장시킬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이성이 중심이 되는 기술적 문제해결방식이라 해도 패션디자인분야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하고 창의성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물론 감성의 중요성을 어떻게 담고 평가하는 가는 앞으로 연구에서의 과제로 남는다.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중에서 단일한 학문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유로 루트벤스타인⁵⁷⁾은 우리에게서 통합적인 마인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이 분석적이건, 정서적이건, 아니면 전통적이건 한 가지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그의 주장이 앞으로 패션디자인 창의성 연구와 교육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일 2012. 3. 12,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C%B0%BD%EC%9D%98%EC%84%B1&query=%EC%B0%BD%EC%9D%98%EC%84%B1&target=dic&ie=utf8&query__utf=&isOnlyViewEE=
- 2) 최윤미 (2001), 패션디자인의 창의적 발상과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공미선 (2003),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전개 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백창수 (2008), 산업디자인 교육의 창의적 사고기법으로서 트리즈 이론 적용, *한국디자인포럼*, 19 pp. 391-401.
- 5) 남현정 (2004), 트리즈를 적용한 창의적 디자인발상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희필 외 (2007), 초등학생 창의성 교육을 위한 TRIZ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0(2), pp. 1-20.
- 7) Root-Bernstein, Robert & Michele (2007),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서울: 에코의서재, p. 412.
- 8) 김중호 (2011. 5. 2), “제품 혁신 한방에 해결 ‘트리즈 이론’”, *조선비즈*, 자료검색일 2011. 10. 5, http://biz.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01/2011050101300.html
- 9) 김효준 (2009), *창의성의 또 다른 이름 트리즈*, 서울: INFINITYBOOKS, p. 125.
- 10) 백창수, *op. cit.*, p. 394.
- 11) 김중호, *op. cit.*
- 12) *Ibid.*
- 13) 김효준, *op. cit.*, p. 152.
- 14) 자료검색일 2012. 2. 12, <http://www.olfa.co.jp/en/contents/cutter/birth.htm>
- 15) “Birth of OLFA CUTTER”. OLFA homepage, 자료검색일 2012. 2. 12, <http://www.olfa.co.jp/en/contents/cutter/birth.html>
- 16) “French 4door refrigerator”, 자료검색일 2012. 2. 20, <http://www.lg.com/us/refrigerators/lg-LMX28988ST-french-4-door-refrigerator>
- 17) “인 아테사 쓰레기통”, 자료검색일 2012. 3. 13, <http://www.switchmodern.com/Waste-Baskets/Danese-Milano-In-Attesa-Waste-Basket.asp>
- 18) 深澤直人, Jasper Morrison (2009), *평범함 속에 숨겨진 감동 슈퍼노멀*, 박영춘 역, 파주: 안그라픽스, p. 14.
- 19) 네이버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2. 2. 12, <http://terms.naver.com>
- 20) 백창수, *op. cit.*, p. 394.
- 21) *Ibid.*, p. 393.
- 22) 김효준, *op. cit.*, p. 163.
- 23) 김효준 (2004), *생각의 창의성*, 서울: 지혜, p. 104.
- 24) 김효준 (2009), *op. cit.*, p. 165.
- 25) Altshuller, Genrich (2011), *새로운 방식의 트리즈*, 박성균 역, 서울: GS인터비전, p. 165.
- 26) 深澤直人, Jasper Morrison, *op. cit.*, p. 86.
- 27) *Ibid.*
- 28) *Ibid.*, p. 36.
- 29) 전은비 (2010), 레이 카와쿠보의 패션과 공간에 나타난 사고와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6
- 30) Harold Koda, et al. (2008), *ReFUSING FASHION: REI KAWAKUBO*, Detroit: Museum of Contemporary Art, p. 30.
- 31) Harold Koda, et al., *op. cit.*, p. 23, p. 30.
- 32) 고영숙 (2009), 일본인의 미의식과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49.
- 33) 김주영 (1995),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8.

- 34) 자료검색일 2012. 2. 25,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2010RTW-CMMEGRNS> 416.
- 35) 자료검색일 2012. 2. 25,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2011RTW-CMMEGRNS>
- 36)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I*, 서울: 교문사, p. 187.
- 37) 임은혁 (2007),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미학, *복식, 57(1)*, p. 60.
- 38) 자료 검색일 2012. 3. 5, <http://www.farfetch.com/shopping/women/comme-des-garcons/items.aspx#oby=5&ps=1&pv=60>
- 39) 자료검색일 2012. 2. 25,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2011RTW-CMMEGRNS>
- 40) *Ibid.*
- 41) 자료검색일 2012. 2. 25,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11RTW-CMMEGRNS>
- 42) 자료검색일 2012. 2. 27, http://www.ebay.com/itm/Authentic-COMME-des-GARCONS-Wrap-Around-Button-Wool-Knit-Sweater-Coat-Jacket-S-/110818961763?pt=US_CSA_WC_Outerwear&hash=item19cd532963d0&ps=1&pv=60
- 43) 자료 검색일 2012. 3. 5, <http://www.farfetch.com/shopping/sale/women/comme-des-garcons/items.aspx#oby=1>
- 44) 자료검색일 2012. 2. 25,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2012MEN-CMMEGRNS>
- 45) 자료검색일 2012. 2. 25,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F2011RTW-CMMEGRNS>
- 46) Blanks, Tim (2011. 3. 5), Comme des Garcons Collection Review, 자료검색일 2012. 2. 12, <http://www.style.com/fashionshows/review/F2011RTW-CMMEGRNS>
- 47) 자료검색일 2012. 2. 27, <http://www.farfetch.com/shopping/women/junya-watanabe-comme-des-garcons-leather-cape-item-10118167.aspx>
- 48) 자료검색일 2012. 2. 27, <http://www.farfetch.com/shopping/women/junya-watanabe-comme-des-garcons-leather-cape-item-10118167.aspx>
- 49) 자료 검색일 2012. 4. 5, <http://www.ivomilan.com/en/product-19695.htm>
- 50) 자료 검색일 2012. 2. 25,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2011RTW-CMMEGRNS>
- 51) 전은비, *op. cit.*, p. 33.
- 52) 자료검색일 2012. 2. 25,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2008RTW-CMMEGRNS>
- 53) 자료검색일 2012. 3. 5, <http://www.yoox.com/searchresult.asp?tskay/3FD17CD7/dept/salewomen/type/1/textsearch/COMME+DES+GAR%C3%87ONS/toll/A/ipp/200/gender/D>
- 54) 자료검색일 2012. 3. 5, <http://www.farfetch.com/shopping/women/comme-des-garcons-cut-out-three-button-jacket-item-10177992.aspx>
- 55) Root-Bernstein, Robert & Michele, *op. cit.*, p. 31.
- 56) 김주영, *op. cit.*, p. 72.
- 57) Root-Bernstein, Robert & Michele, *op. cit.*, pp. 412-